

도서관과 시각장애인의 읽을 권리

- 정기간행물 접근을 중심으로

글 · 백운태

前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간사
peaceful100@hanmail.net



1. 문제제기

독서는 시각장애인의 삶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장애 특성상 이렇다 할 취미생활을 가질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독서는 여가활동의 좋은 반려자가 된다. 또, 중도실명자들에게 있어 독서는 재활과 사회복귀의 수단이 되며, 평생학습과 직업재활의 길로 이끄는 훌륭한 안내자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점자인쇄기, 녹음부스 등자가 출판 시설을 갖춘 시각장애인도서관이 광역시도 단위로 1개 이상 전국적으로는 20여관이 존재한다. 1관 당 대체로 10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에서 주로 운영한다.

또, 시각장애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질병, 사고에 의한 중도실명 인구가 증가 일로에 있고, 일반 서적 읽기가 곤란한 저시력자, 노안자의 증가세도 뚜렷하다. 현재 국가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수는 22만 명에 달하며 미등록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시각장애인수는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각장애인의 독서 매체나 방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종전의 점자도서나 테이프도서이외에 PC에 설치된 화면읽기 프로그램으로 책 읽기를 할 수 있는 전자도서가 보편화되었는가 하면 윈도우즈 운영체제로 움직이는 점자정보단말기(일명 무지점자기)도 많이 보급되어 텍스트 파일만 제공되면

- 목 차 -

1. 문제제기
2. 가능한 방법들
3. 장단점 비교
4. 확대 적용의 길 열려야
5. 맺는 말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은 웹 접근성을 개선하는 일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전화 ARS 에 의한 것인데 자료 내용을 운영자가 서버에 탑재해 놓고 전화로 접속하는 이용자에게 이를 청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계에 돌출된 점자정보를 한 줄씩 읽어 내려감으로써 독서가 가능해지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육성으로 낭독한 책의 내용을 MP3 파일로 저장하여 재생기로 읽을 수 있다. 오디오도서도 등장하여 시각장애인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확대 독서기와 광학 렌즈의 개발로 저시력자의 독서 환경도 크게 개선되었다.

이런 와중에서 시각장애인 독자들은 출판계의 동향이나 신간 정보, 정부의 독서 진흥 정책과 제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트렌드 변화 등을 알고 싶은 욕구도 커지고 있다.

예를들면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문화》도 이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자료에 대한 접근이 만만치 않다. 책을 구해서 읽으려면 낭독자가 있어야 하고 웹에 게시된 《도서관 문화》를 화면읽기 프로그램으로 읽어 보려 해도 이미지 기반의 PDF파일인 관계로 접근이 어렵다. 방법은 없을까? 필자는 여기서 세 가지 정도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가능한 방법들

첫 번째 방법은 웹 접근성을 개선하는 일이다. 이것은 다시 두 갈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더 똑똑한 화면읽기

프로그램이 나와 이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주는 것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시각장애이용 화면읽기 프로그램 중 웹 접근이 가능한 것은 3종 정도인데, ‘드림보이스’ ‘이브 포윈도우즈’ ‘센스리더’가 그것들이다. ‘드림보이스’는 복지단체에서 시각장애인에게 한해 무상 보급하는 것이며 나머지 둘은 20~30만원대에 시판되고 있으나 그나마 시장성이 좋지 않아 ‘이브 포윈도우즈’는 2006년 이후 개발을 중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웹 접근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의 출현은 기대하기 어렵다.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높이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PDF 파일로 게시된 《도서관 문화》를 Hwp 등 텍스트 기반의 파일로 변경해주거나 아니면 1달치를 1개의 파일로 제작하여 자료실에 올려 필요한 사람이 내려 받게 하거나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전화 ARS 에 의한 것인데 자료 내용을 운영자가 서버에 탑재해 놓고 전화로 접속하는 이용자에게 이를 청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전화의 안내 음성에 따라 메뉴 번호를 눌러 이동하여 필요한 정보를 듣는다.

이 방식은 원음이 육성으로 제공되는 경우와 TTS 기계음으로 제공되는 두 경우로 나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으니 직접 청취체험을

해보자.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대표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기술, 장비 등 한국통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전화도서관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다. 접속번호는 060-700-1236. 이곳에서는 일간지 서비스가 탁월한데 다수의 전문 낭독자가 참여하여 면별, 주제별로 낭독하고 있으며 조간신문일지라도 매일 오전 중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청취전화요금은 전국 어디서나 시내 통화료를 적용하며 장애인은 반액이다.

세 번째 방법은 IT기술을 십분 활용하여 개발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문자, 숫자 등을 고밀도 코드화하여 가로 세로 1센티미터 크기의 작은 사각형 안에 넣은 바코드, 즉 이차원 바코드를 종이책 본문의 우측 상단에 인쇄하여(2쪽당 1개씩) 소형 스캐너로 인식하여 그 내용을 음성으로 듣는 방식이다. 보이스아이로 알려진 이 기기는 담배갑만한 크기의 휴대용 기계와 미니 스캐너만 가지고 PC에 연결해 쓰는 것 두 종류가 있다. 이 제품은 지난해 3월 (주)에이디정보통신에서 출시한 보조공학기기로 현재 보이스아이 심벌이 찍혀 나오는 간행물로는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발행하는 월간 《장애인과 일터》 등 장애인 기관 단체 간행물 10여 종과 월간 《샘터》, 월간 《좋은 생각》 그리고 헌법재판소 공보 등이 있다. 《도서관문화》도 이런 방식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

3. 장단점 비교

이제는 위 세 가지 가능한 방법들에 대하여 그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하자.

비교 분석의 지표로서 필자는 동시성, 범용성, 비용성, 기록성을 제시한다. 동시성은 발간된 책을 시각장애인도 시차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를 따져보는 것이고, 범용성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두루 통용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며, 비용성은 특정 방법을 채택하여 실행에 옮길 때 소요되는 경비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 보는 것이며, 기록성은 자료를 보존하거나 필요에 따라 특정 내용을 참고하거나 인용할 때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먼저 웹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는 일부러 생각해 보자. 소프트웨어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으로 접어두기로 하고 홈페이지를 변경하는 방안만 대해서만 검토해 보기로 하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PC와 인터넷 선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볼 때, 동시성, 비용성, 기록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범용성을 갖지는 못한다. 컴퓨터를 배우지 못했거나 활용 능력이 부족한 시각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컴퓨터는 정보 습득 매개체로서 장애인에게도 유용한 수단이 되지만 난해한 용어들, 복잡한 사용법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더더욱 골칫거리이다.

참고로 PC활용에 있어 음성 지원이 필요한 1~3급의 중증 시각장애인 정보화율은 30% 정도로 파악하며 이 중에서도 태반은 초보 상태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PC 사용자가 중도 실명할 경우 화면읽기 프로그램에 쉽게 적응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도 그리 큰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다음 전화도서관 서비스의 경우는 어떠할까? 동

시성과 비용성의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음성 녹음은 종이책이 발간된 후에야 가능하고 녹음시간도 고려돼야 하므로 빨라도 일주일 정도 시차는 벌어진다. 청취 전화요금도 장애인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집 전화 기준으로 대략 시간당 500원이 나온다. 만약 4시간 분량이라면 2,000원이 되는 것이다. 범용성은 괜찮은 편이다. 음성에 의존하며 지난 호는 삭제하는 것이 통레이므로 기록성은 낮다.

끝으로 보이스아이를 사용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 보자. 종이책에 2차원바코드가 찍혀 나오므로 동시성에는 문제가 없다. 또, 여기에 스캐너를 갖다 대면 플레이어에 소리가 나오게 되므로 범용성도 좋다. 한글을 모르는 문맹자들에게도 유용할 정도다. 다만 기기의 보급대수가 현재 800대 수준이므로 보급이 계속 확대돼야 할 필요는 있다. 비용성은 기기 구입비가 문제된다. (휴대용 30만원대, PC연결형 20만원대) PC연결용은 텍스트가 화면에 뿌려지므로 기록성도 낮는다.

4. 확대 적용의 길 열려야

앞에서 말한 방안들은 공공성을 띤 다른 모든 간행물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정부 및

산하기관과 지자체등은 자체 홍보물을 시각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도서관법」에 의한 지역대표도서관도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와 시책, 소식 등을 시각장애인에게도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정 「도서관법」이 설치를 규정하고 이미 활동에 들어간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에 거는 기대가 크다. 《도서관문화》를 비롯하여 공공성을 띤 각종 정기간행물을 종합적으로 지원센터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어떨까?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할 필요가 있고 전화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자체 ARS 시스템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개발된 화면읽기 프로그램과 보이스아이 같은 제품의 특허권을 사들이고 업그레이드를 적극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IT기술을 활용해 시각장애인이 점자나 녹음 외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특히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흐름을 시각장애인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높여주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

제도 변화는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봉사가 분리형에서 통합형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변화가 장애인에게는 자기 개발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기회를 많이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구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센터는 우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등 시각적 정보의 대체텍스트가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키보드로 웹 항목 접근이 가능한지 등을 조사하여 시정과 계도 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한국도서관협회도 지금까지보다도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조직 내부에 담당자를 지정한다든지, 도협 운영에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이 검토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도서관문화》와 도서관협회 홈페이지에는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의 현장도 소개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도 담아내면 좋겠다.

5. 맺는 말

앞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하에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봉사는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특수도서관을 중심으로 이

루어져 왔다. 그러나 개정 「도서관법」에서는 특수도서관 개념이 공공도서관에 포괄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전국의 시각장애인 도서관 봉사를 총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도서관이 장애인 봉사에 나설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봉사가 분리형에서 통합형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뜻한다. 필자는 이 같은 변화를 매우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인다. 그 까닭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러한 변화가 장애인에게는 자기 개발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기회를 많이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구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근자에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특수교육법」 등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과 개정, 재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참여가 크게 신장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국회에서부터 구·군 의회에 이르기까지의 정 활동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도 적지 않고 기업체에 취업하거나 공무원으로 진출한 시각장애인도 상당수에 이른다. 초등학교 교단에서 정상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각장애인 교사도 있다. 이제는 안마사도 백화점, 택시회사 등에서 헬스키퍼로 변신 중이다. 올해부터는 기업체에서 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가 근로 지원인을 파견하는 새로운 제도도 생겨났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노동력은 더 이상 힘의 개념이 아니다.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손가락 끝으로 펼치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시대에 제작기간이 길고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 만들어 내는 점자나 테이프 녹음 자료를 비치하고 대출하는 종전의 도서관 서비스 방식으로는 정보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봉사는 다변화, 다양화 되어야 한다.

전문사서의 배치는 물론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의 스캐닝 서비스, 대면 낭독 등 개별 서비스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점자정보단말기, 독서 확대기 등 보조공학기기와 음성 지원 또는 화면 확대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 비치 등 각 관의 실정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필자는 금년 3월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4월 11일부터 발효 예정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일명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모든 장애인 단체가 연대하여 100만인 서명운동, 관

계 요로에 대한 진정과 설득 활동, 입법과정에서 7개 관계 부처의 조율과 협의 절차를 통하여 얻어진 값진 결실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큰 법이라 하겠다.

이 법은 장애인을 더 이상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과 권리의 주체로서 자리매김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손해배상과 시정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례로, 국가인 권위원회 내에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는다면 법원은 고의적인 차별의 경우 징벌 수준의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당연히 제도 정착 과정에서 갈등과 마찰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법은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도서관계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차제에 선진국에서 검증된 기법과 사례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시키고 기존의 시각장애인도서관 운영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을 살리고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것들을 전파해 나간다면 오히려 도서관계가 차별 철폐의 모범 사례를 꽃 피우는 선봉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